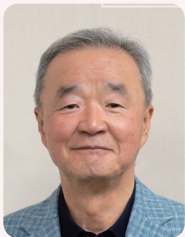


『세상을 보는 눈, 융합 지성사』를 만나다



송만호
유미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정치와 경제, 종교와 과학, 철학과 기술이 뒤엉켜 형성된 오늘의 세계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세상을 보는 눈, 융합 지성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특정 학문이나 한 지역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명의 장기적 궤적을 종합적으로 추적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세상을 보는 눈'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다.

이 책은 '융합 지성사'라는 제목 그대로 철학사, 종교사, 서양사, 경제사는 물론 과학사를 가로지르며 인류 문명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 교과서 개발 STORY에서는 교과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융합 지성사>는 시중 유통 도서이나, 엄격한 인정 신청 과정을 거쳐 2025년 인정도서(서울특별시교육청, 하나고등학교)로 승인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융합 지성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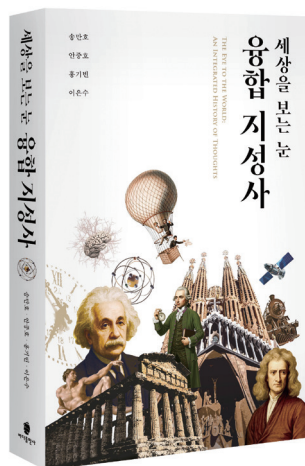
시도이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온 영미 중심의 문명 형성과 그 사상적 토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양 문명의 모태: 문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책은 전통적인 역사 서술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는다. 문자와 국가가 등장한 이후만을 ‘역사’로 다뤄 온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인간이 어떤 존재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인간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전개되는 모든 논의의 바탕이 된다. 인간의 사유, 종교, 제도, 정치와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학적·사회적·문화적 진화의 산물이다. 이 책은 문명을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삶의 방식이 변화해 온 과정으로 재해석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 이상화된 고대 그리스, 비판적으로 읽기

고대 그리스는 흔히 민주주의와 합리성의 출발점, 서양 문명의 이상향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통념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으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던 도시국가들의 집합체였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상과 문화는 오늘날의 터키의 에게해 연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저자는 ‘그리스 문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대 유럽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역사적 구성물’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서양 중심의 문명사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대주의와 구약 성서, 기독교와 로마: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로마에 의한 세계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형성과 그 정치적·역사적 전개이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는 단일한 신적 계시의 기록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저자와 공동체에 의해 편집·확정된 문헌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기독교는 예수 생전부터 존재했던 종교가 아니라, 예수 사후 바울을 중심으로 교리와 조직이 형성되면서 하나의 종교 체계로 자리 잡았다. ‘대속과 부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핵심 교리는 이후 서구 사회의 윤리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로마 제국의 통합 과정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공식화되며, 종교적 교리가 정치 질서와 결합해 작동해 왔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과정은 기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이념 체계로 발전했음을 드러낸다.

중세는 암흑인가? 광명인가?: 중세는 정말 ‘암흑기’였는가

서유럽의 시각에서 중세는 흔히 암흑의 시대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 책은 같은 시기를 이슬람 세계의 관점에서 동시에 조망한다. 중세 이슬람 사회는 종교적 관용과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수학, 의학, 천문학, 화학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그 성과가 다시 서유럽으로 전해졌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역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서유럽으로 다시 유입되었다. 이 책은 문명의 발전이 결코 한 방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문명권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생활 세계의 재발견: 르네상스와 대항해, 그리고 자본의 탄생

르네상스는 예술과 인문주의의 부흥으로 이야기되지만, 이 책은 그 이면의 권

력과 자본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부와 금융, 교황과 정치 권력,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형성된 근대적 인간상이 르네상스 문화의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지리상의 발견과 대항해 시대는 세계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가 형성되었고, 식민지 지배와 원주민 착취, 종교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책은 대항해 시대를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폭력과 신앙, 이익과 이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세계 체제의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신에서 이성으로: 다시 인간을 묻다

근대 철학의 전개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성 중심 세계관’으로의 이동으로 요약된다. 이 책은 데카르트, 로크, 칸트, 니체, 다윈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이성은 인간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인간을 지나치게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 역시 자연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며, 인간과 사회, 윤리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저자는 다윈을 단순한 생물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꾼 사상가로 평가한다.

현대의 판을 짠 19세기: 19세기가 시작한 오늘날의 세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경제 체제의 기원은 19세기에 형성되었다. 산업 혁명은 공장 노동을 중심으로 인간의 시간 감각과 공간 감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표현되는 생활양식을 낳았다. 이어 거대 자본주의와 독점기업이 등장하고, 노동문제와 사회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제국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경제 체제로 연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사상적 대안이 바로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였다. 이 책은 마르크스, 마르크스주

의, 공산주의를 구분해 설명하며, 이들이 각각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었는지를 이론의 측면에서 논의한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현실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상 사회에 대한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지식의 등장, 현대 과학: 현대 과학이 던지는 새로운 철학적 질문

이 책은 서양 문명에서 논의를 시작해 현대 과학으로 시선을 옮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뇌신경과학은 시간과 공간, 인과성, 자유의지, 자아 개념에 대해 기존 철학이 전제해 왔던 틀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인간의 뇌는 완전한 합리성의 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해 온 불완전한 판단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써 ‘보편적 이성’이라는 개념 역시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또한 뇌-기계 인터페이스, 유전자 기술, 융합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의 경계 자체를 재정의하도록 요구한다.


지금, 왜 “융합지성사”인가?

오늘의 세계는 단일한 학문이나 이념으로 설명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기후 위기, 기술 변화, 정치적 양극화, 종교 갈등, 경제 불평등이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세상을 보는 눈 융합지성사』는 오늘날 직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류 문명을 다시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은 방대한 역사와 사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독자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에 대해 사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역사 해석은 누구의 시각이었는가?”

“자유와 평등, 박애는 과연 동시에 가능한가?”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성찰하려는 독자에게 『세상을 보는 눈, 융합 지성사』는 인간의 지성사를 이해해 나갈 “새로운 지적(知的) 지도”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탐방’ 코너를 통해 만난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교양서를 넘어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다. 

필자 소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실감해 2014년 유미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세대의 융합과 학교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창의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학의 큰 역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피엔스의 깊은 역사》(공저)가 있다. 유미과학문화재단(<http://www.youmeacademy.com/>)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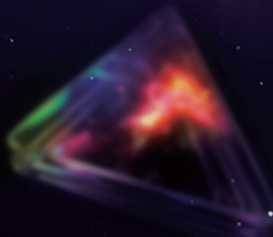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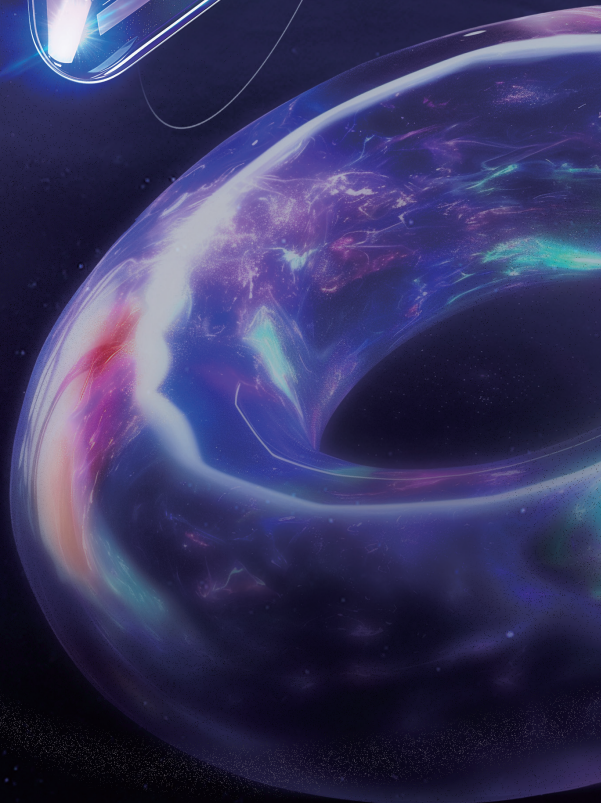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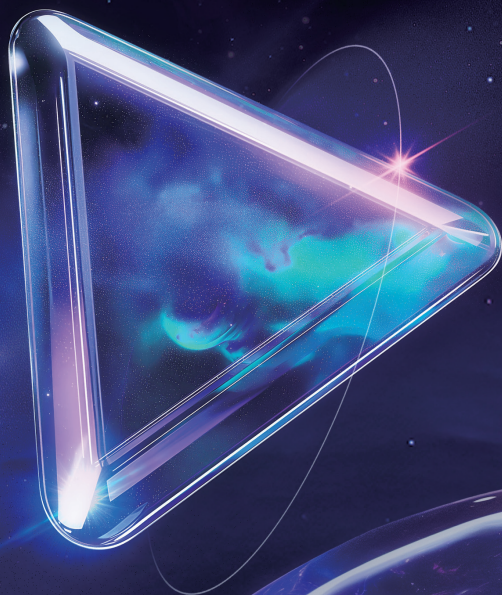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 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티치
www.m-teacher.co.kr

